

종교교육학연구 제18권. pp.211~228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6

##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鄭 賢 淑

(수원대학교)

### 요약

강압교육에 대비되는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출현의 개념과 배경을 고찰한 후 그 기본 원리인 이성, 감응하는 사랑, 종교에 관하여 고찰 하였다.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도록 이성적 판단을 도와주며, 친절한 사랑으로 입장교육에 임해야하며, 궁극적으로 종교적 영성의 성숙으로 이끌도록 해야한다. 엘리스의 논리요법 상담론,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론,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이형득의 본성실현 상담론을 예방교육의 기본원리와 비교하였다. 또한 ‘저녁말씀’, ‘아침명상’, ‘고해성사’, ‘영적지도’, 개인적 대화, ‘귀엣말’ 등을 현대적 상담기법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핵심주제어: 예방교육, 감응하는 사랑, 입장교육, 인간중심 상담론, 합리적 정서치료, 공감적 이해, 로고테라피.

## I. 서론

돈 보스코는 ‘예방교육’의 창안자로서, 그리고 예방교육을 실현하는 남녀 수도회인 ‘살레시오 수도회’를 창단한 교육자로서 성인품에 오른 분이다. 그가 활동한 19세기 후반부터 전 유럽이 구 제도로부터 현대적 사회로 변모하는 격변기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연속이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청소년의 교육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었다.

당시 대중교육에 관한 새로운 사상으로 헤르바르트의 사실주의파나 낭만주의적 교육사상이 영향을 미쳤으나 기본적으로 ‘강압적 교육체제’(Repressive System)

가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돈 보스코는 규칙에 어긋나면 벌을 주는 강제적인 교육 방식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성, 사랑, 종교’라는 기본 원리에 입각한 ‘예방교육 제도’(Preventive System)라는 창의적 방법을 교육현장에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둔 교육의 실천가였다. 돈 보스코의 교육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으로는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얀센(Jansen)의 교육방식은 청소년을 나쁜 사회환경으로부터 엄격히 격리시키고 규칙적인 수업과 종교생활을 시켜 인간성의 타락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돈 보스코는 청소년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응시키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얀센적 교육의 단점을 비판적으로 승화시켰다. 한편 루소의 자연주의적 교육이 나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교화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다만 이성과 사랑에 입각한 영혼의 구제라는 돈 보스코적 기본 원리를 지킴으로써 청소년의 선도가 가능해진다. 끝으로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의 ‘온순한 덕’이 그의 교육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살레시오의 사랑에 의한 교육관은 돈 보스코에게 가장 근본적인 길을 제시한 중요한 사상이었으며, 따라서 그 자신이 창건한 수도회 명칭을 ‘살레시오회’라고 명명하였다.

이 논고에서는 먼저 돈 보스코 예방교육 출현의 배경을 간략히 기술한 후, 예방교육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이성’, ‘감응하는 사랑’, ‘종교’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돈 보스코가 주장한 예방교육과 현대적 상담이론의 관계를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로저스의 ‘공감적 이해’,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와 비교 검토했으며, 끝으로 이형득의 ‘본성실현 상담론’과 비교하였다. 끝으로 예방교육에서 실시한 여러 교육방법에 대한 현대적 상담 기법에 관련한 해석을 논했다.

## II. 돈 보스코 예방교육 출현의 배경

돈 보스코(1815-1888)가 출생 하고 활동한 기간은 유럽이 구제도로부터 현대로 옮겨가는 대격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급속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불러왔다. 통일국가로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성립,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의 형성 및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식민지 팽창과 제국주의적 갈등 등의 변화 속에서 정치적 및 사회적 대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의 경제 사회적 모습은 극히 다양하였다. 기본적인 산업은 농업과 상업이었는데, 산업혁명의 물결이 몰아치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일어났다. 돈 보스코가 활동한 토리노(Torino)시의 인구는 1808년에 65,000명에서

1862년에는 32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그당시 인구 동태로서는 대단히 급격한 팽창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인구 집중화는 빈곤층의 확대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층의 증대를 불러왔다. 따라서 그의 오라토리오(Oratorio)<sup>1)</sup>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요소로 도시의 인구 팽창을 손꼽을 수 있다.<sup>2)</sup>

19세기 초반의 불경기 이후 문화와 대중교육에 새로운 관심이 쏠리었다. 세기초에 프뢰벨, 페스탈로찌, 길라드 등 헤르바르트의 사실주의파와 영적 성향을 지닌 이들에 의해 낭만주의 운동이 교육에 유입되었다. 그리고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리교육이 어느 정도 시작되었다. 그 후 실증주의가 교육학과 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돈 보스코가 활동한 이탈리아 북부 피아몬테(Piamonte)에서는 1828년 11월에 크레모나(Cremona)에서 시작된 페란테 아포르티(Ferrante Aporti)의 어린이 집들이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었다.

돈 보스코가 청소년 교육사업을 벌일 당시, 이탈리아 공교육은 1859년 11월 13일에 공포된 카사티(Casati) 법에 의해 전반적으로 재정비 되었다. 그 결과 해가 갈수록 정부가 학교 운영권을 제한했으며, 초등교육의 발전은 부진한 상태였다.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 활동이 전개되기 전인 19세기 초반에 다양한 영역 즉 정치, 사회, 법률과 형사제도, 교육, 종교 등에서 예방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다. 특히 사회분야에서는 만연된 빈곤과 구걸, 범죄, 유아 양육, 초등 교육과 관련하여 예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과 같은 예방적 방식을 통해 곤궁한 이들을 구하려는 사조가 있었다. 모리치니(Morichini)와 드 재란도(De Gerando) 남작이 동시에 이런 생각을 발전시켰다. 남작은 「공공단체들에 관하여」(Della pubblica beneficenza)라는 기념비적인 저작 제2부에서 교육의 예방적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논했다.

모든 자선 중 가장 효과적이고 건전한 것은 가난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예방적인 애덕실천 방법중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육 보다도 더 유익한 것은 없다고 보았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육에는 애덕의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바, 그들은 현재를 돕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유아원과 기아 및 고아를 돌보는 기관과 또한 빈곤 계층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관들도 강조되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교 및 가난한 아동들의 공장 교육이 절대 빈곤 계층의 구제와 동일시되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줄

1) 라틴어의 Orare(기도하다)에 어원을 두는 개념으로, 원래는 기도하는 장소를 뜻하지만 오락, 공부, 연극 등 그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처음의 모습은 일종의 주일학교와 같았으나, 차츰 기숙사와 학교의 역할을 했다.

2) P. Braidó, *L'esperienza pedagogica di Don Bosco*, Las Roma, 1988, pp.12-16.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그들의 자녀들을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훌륭한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그들의 부모들을 부양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sup>3)</sup>

아포르티는 악이 저질러지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그것을 처벌하기 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도덕함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광범위하게 유아원들을 만들 것을 제창했다. 이러한 유아원 설치의 근본 이유로 공교육의 예방적 기능을 내세웠다.<sup>4)</sup>

한편 종교는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영역의 '애덕'에 있어서 특별히 효과적인 교육적 예방요소로 여겨졌다. 여러 가톨릭 수도회들은 종교적 정신과 사도적 열정을 가다듬고, 사회적 혜택을 덜 받는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 어린 견습공들, 하층의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고 공부시키며 '버림받은' 아이들을 종교와 사회로 복귀시켰다. 그들 모두는 진정으로 예방적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비교적 일치된 견해와 행동방식을 가졌다.<sup>5)</sup>

이러한 “예방” 개념의 사회적 확산 속에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매우 성공적인 체계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그는 헌신적인 종교교육의 모범적 업적을 남겼다.

### III. 예방교육의 개념과 기본원리

교황 비오 11세는 돈 보스코의 시성식 강론에서 “현대 청소년 교육자의 전형이며 독특한 방법으로 교육학 실습에서 훌륭하고 확실한 방법을 개척한 분”<sup>6)</sup>이라고 그 업적을 높이 치하했다. 그의 독특한 교육 방법은 이른바 “예방교육”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실천한 것이다. 예방교육은 현대의 의학 분야 중에서도 첨단을 달리고 있는 “예방의학”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예방의학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보존, 질병예방의 정책을 연구, 실천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 '치료의학'과 반대의 뜻이라고 정의가 되어있다. 병이 발생한 후 치료에 나서는 치료의학보다 미리 건강한 신체를 유지시켜 발병 자체를 막는 예방의학이 훨씬 높은 수준의 의학이라 하겠다.

3) Ibid., pp.16-22.

4) F. Aporti, *Elementi di pedagogia*, in: *Scritti pedagogici*, raccolti e illustrati da A.Gambaro, vol.II, Torino, Chiantore, 1945, p.114.

5) P. Baido, op.cit., pp.24-27.

6) Pius XI 연설, Acta Apostolicae Sedis, 26(1934.4.1), pp. 31-34

돈 보스코는 예방교육의 개념을 ‘억압적 교육제도’ 또는 ‘강압교육’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에는 언제나 강압적 교육제도(Repressive System)와 예방교육제도(Preventive System)라는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강압적 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교칙을 알리고 그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감시하며, 그 감시는 엄격하고 다소 위협적이며, 범칙자가 발견되면 벌을 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교사의 말이나 시선은 늘 엄격해야 하며, 나아가 위협적이어야 하고, 교육자는 피교육자에 대한 친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방법은 덜 귀찮고 쉬우며, 특히 군대사회나 법 또는 규범에 이해력이 있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적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방법이 예방교육제도인데, 학생들에게 교칙을 알려주고, 그들은 언제나 교사의 보살핌 아래 있게 되고, 지도에 임하는 교사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그들을 인도하며 친절한 태도로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달리 말하여, 이 방법은 학생들이 잘못을 범할 수 없는 도덕적 상태에 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완전히 이성과 종교와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체의 심한 벌은 허락치 않고 가벼운 벌도 피하는데 있다.<sup>7)</sup>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의 이성적 판단을 도와 스스로 잘못이나 규율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친구나 형 혹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친절한 사랑으로 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여 종교적 영성의 성숙으로 이끌도록 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의 기본 원리는 그의 저서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 교육제도」에서 논했듯이 이성, 사랑, 종교의 셋으로 요약된다.

## 1. 이성(理性)

돈 보스코는 이성(Ragione)은 단순한 지성적 개념화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실천적 행위에 이르는 기본으로 보았으며, 사랑과 종교교육도 이성에 바탕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규율의 이해, 정의(正義), 분별력과 절제, 중용과 신중성 등 인간을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케 하는 기본이다.

이성은 명확한 개념과 진리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은 순수한 본능적 애정이 아닌 진정한 자애(慈愛)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참된 사랑은 영적이며 이성적이다.

7) P. Braidò, *Il sistema preventivo di Don Bosco*, Zurich, PAS-Verlag 1964, pp.21-46

그는 교육 실천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청소년 스스로가 올바른 추리력과 분별력을 갖고 규율 준수와 부과된 벌, 나쁜 습성의 교정, 또는 종교적 행사참여와 성사생활 실천의 의미와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돈 보스코의 이성에 대한 가르침은 지적 교육의 목적이 “학생이 옳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판단하며, 추리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도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지적 교육은 인간이 그의 의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신심 다음으로 이를강조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면에서 돈 보스코는 청소년들의 폭넓은 표현과 자유로운 생활을 권고했다. 즉 사색, 의문, 질문 등이 교사의 냉담한 태도에 억눌려서는 안되며,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발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적 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성장 시킨다고 보았다.

## 2. 감응하는 사랑

예방교육의 핵심은 ‘사랑’ 인데 이것은 ‘감응(感應)하는 사랑 또는 친절한 사랑’(Amorevolezza, Loving Kindness)이라고 하여 고린토 1서 13장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낸다”란 말씀에 기원한다. 나아가 교육자와 학생 사이의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엮어주는 그런 사랑이다. 예방교육을 위한 사랑은 일방적이거나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들 입장에서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사랑이다. 즉 사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가 사랑을 통해 자신이 사랑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부모나 교육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청소년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려 할 뿐 아니라 일탈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경계하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것이 예방교육의 핵심 비결이다.

돈 보스코가 1863년에 소년들에게 한 훈화에서 보듯이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사랑)은 예방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적 요건이 됨을 알 수 있다.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곧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

8) Ibid., pp.163-165

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내가 이곳에 온 유일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참다운 우정과 신뢰가 있게 합시다.”<sup>9)</sup>

1884년 5월 10일 돈보스코가 오라토리오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는 교육에 있어서 임상교육(*assistenza*: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것)<sup>10)</sup>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 편지는 ‘예방교육’, ‘학교교칙’과 더불어 그의 예방교육의 원리와 특성을 명시했으며 ‘친절한 사랑’을 강조했다.

“아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특히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친숙해지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신뢰를 쌓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자기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가 되시면서 우리들의 나약함을 친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친숙함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교사가 교단 위에만 서 있다면 그는 다만 교사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보낸다면 아이들은 그를 형님같이 여깁니다. 만일 신부가 강론대에서 강론만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자신의 의무만을 이행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말 한마디는 사랑의 말이 됩니다. 재미있게 놀고 있는 중에 예기치 못한 교사의 귀엣말 몇 마디가 얼마나 많은 개선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교사는 특히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 전류를 통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걱정거리나 결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교사는 수고나 귀찮음, 그리고 아이들의 배운망덕, 결점, 잘못을 참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습니니다. 교육자의 규범은 이것입니다.”<sup>11)</sup>

같은 글에서 돈 보스코는 참된 사랑의 관점에서 강압교육과 예방교육의 차이를 강조한다.

“다시 정리해서 말한다면 참된 사랑이 있으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식어지면 이미 모든 것이 순조롭지

9) G. Lemoyne, *Biographical Memories of St. John Bosco*, Vol.VII(Trans. Diego Borgettelo), New Roscholl, 1969, p.504

10) 라틴어의 *assistere*(같이 있다)에 어원을 두는 개념으로, 같이 있으므로 교사와 아이들 상호간에 마음이 통하는 것, 즉 상호신뢰를 전제로하는 교육활동으로,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11) 살레시오 수도회편, 《청소년교육 돈 보스코와 함께》, 돈보스코미디어, 2003, 44-46쪽.

못하게 됩니다. 왜 사랑 대신에 냉엄한 교칙을 앞세우려 합니까? 왜 돈 보스코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깊은 애정으로 보살피며 아이들의 잘못을 예방하는 교육방법 대신 더 편하고 간단하다고 규칙을 엄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꼼짝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증오와 불쾌감만을 품게 됩니다. 또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만들지 못하면 지도자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이같은 상태는 서로 친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 편지의 끝부분은 그의 예방교육의 3대 원리 중 하나이자 예방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종교적 구원과 사랑(애덕)’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여, 여러분을 위해 일생을 보낸 이 늙은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만 한 가지, 아이들과 교사들 사이에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신뢰의 정이 있었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아 주던 시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 놓았던 시대, 모두에게 사랑과 기쁨이 있었던 시대의 오라 또리오처럼 행복한 날이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sup>12)</sup>

### 3. 종교

예방교육에서 종교는 교육의 내용이자 수단이며 궁극적 목표라 할만큼 중요하다. 돈 보스코 교육의 목적은 영혼을 돌보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성적인 사고와 친절한 사랑을 통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종교야말로 예방교육의 기본 근간이었다. 앞서 인용한 1863년 소년들에게 한 훈화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었다.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곧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또 살레시오 회원에게 보낸 다음 글에도 예방교육에서 종교의 위치를 잘 드러낸다.

“교육은 어려운 예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만이 참된 교육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길을 가르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께 겸손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의무에 대한 높은 이상과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사랑 받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자연스런 용이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이시며, 모든 것에서 우리의

12) 위의 책, 46-51쪽.

모범이십니다.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sup>13)</sup>

종교는 전인교육의 요건이다. 인간의 영성적 차원은 인간 존엄성의 기반이므로 전인교육의 핵심이 된다. 사랑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느님의 소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물질주의 등 타락한 가치관을 바로 잡고 도덕적인 인간상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 교육이 강제적이고 타율적이거나 의무적 참여로 행해진다면 예방교육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한 교리의 이해와 친절한 사랑에 바탕한 성사생활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돈 보스코는 종교적인 성사가 형식적 전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하느님을 체험토록하는 자연스런 종교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성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뿐만 아니라 성사 생활의 유익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사를 받고자 하는 의의와 마음가짐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성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므로 성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향과 타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합당한 의향과 준비로 성사에 임하면 마음의 정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믿음, 희망, 사랑의 생활로 충만될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의향도 준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또는 의무적이나 강제적으로 임하면 그 성사가 표시하는 은총을 받을 수 없다. 신뢰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성사들을 받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성사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자가 솔선 수범하여 신앙적 모범을 보일 때 청소년들에게 성사생활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돈 보스코는 잦은 고해성사와 영성체, 매일 미사 참례, 성모께 대한 신심, 종말에 대한 생각은 악의 유혹과 나쁜 습성의 형성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이며 위협과 억압 그리고 회초리를 멀리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하였다.

#### IV. 예방교육에서의 상담

돈 보스코는 심리학자도 아니었고,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나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예방교육에서는 많은 교육활동이 상담이었으며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상담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나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이들은

13) 1883.1.29.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썼던 편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느 아이에게든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조언과 상담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친숙함은 애정을 낳고, 애정은 신뢰를 낳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아이들은 교사들과 임장지도자와 웃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고해소 안에서든 밖에서든 솔직해지고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온순히 따르기 마련입니다.”<sup>14)</sup>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의 3대 기본원리를 현대 상담이론의 측면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예방교육에서 사용한 상담기법을 고찰하여 현대 사회의 학교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교육이나 종교교육의 실천적 모델로 삼고자 한다.

## 1. 예방교육의 ‘이성’과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논리와 이성을 상담과 심리요법의 핵심적 요소로 도입한 예는 알버트 엘리스의 ‘논리요법 상담론’ 또는 ‘합리적 정서적 치료’(Rational Emotive Therapy) 이다. 이 상담론에서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사고 둘 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내담자를 비논리적 불합리한 사고의 관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자리에 논리적인 관념들을 대체시키는 것을 학습토록 돕는 것이 상담의 역할이다. 이 목표는 내담자가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로부터 습득한 비 이성적이고 미신적인 신념들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인생철학을 내면화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돈 보스코가 이성을 중요시한 것은 다음의 비유에 잘 드러난다. “종교와 이성은 예방교육을 움직이는 두 개의 태엽이다. 예방교육에서는 사나운 말의 입에 물려진 재갈과 같은 종교가 젊은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고삐와도 같은 이성이 젊은이의 행로를 조종한다. 그러므로 예방교육의 비결은 종교와 이성, 이 두 마디로 요약된다. 즉 행동을 제어하는 참되고 진실한 종교와 활동에 도덕적 원칙을 적용시키는 이성으로 요약되는 것이다.”<sup>15)</sup> ‘고삐의 역할을 하는 이성’이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기능을 의미하며, 그의 예방교육의 다른 요소인 종교와 친절한 사랑의 기반을 이루는 자율적 이해 능력이다.

예방교육에 있어서 ‘이성’의 원칙은 설득하고 확신시키는 방법과 밀접히 관련된다. 규칙이나 규범, 경고가 이성적인 것이라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것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그것을 의식하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 이성적인 교육이 완성되는 것이다.

14) A. Panampara, 이선비 옮김, 《예방교육과 상담》, 돈보스코미디어, 2000, 221쪽.

15) 위의 책, 82쪽.

돈 보스코의 이성 교육의 목적이 “학생이 옳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판단하며, 추리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도와주는 것” 이라고 했는데, 이는 엘리스의 논리요법 상담의 목표를 청소년 교육에 그대로 적용한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즉 돈 보스코는 이론적인 상담연구자가 아니었으나, 이미 실천적으로 논리상담요법의 핵심을 교육현장에 적용했다고 보겠다.

## 2. 예방교육의 ‘감응하는 사랑’과 로저스의 ‘공감적 이해’

칼 로저스(C. Rogers)가 창안한 ‘비지시적 상담’(1949)은 후에 ‘내담자 중심 상담’(1951) 으로 다시 ‘인간중심 상담’(1974) 으로 불리운다. 이 상담론의 주된 틀은 상담자가 솔직한 태도, 인간적 존중 및 공감적 이해의 태도를 내담자에게 전달하여 신뢰와 허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중심 상담의 핵심적 기법은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이며,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내담자의 경험들과 감정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감정들이 상담의 과정 순간 순간에 내담자에게 갖는 의미를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정확한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강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내담자 자신 내에 존재하는 자아와 유기체적 경험간의 불일치성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의 방법에 진단이나 평가 같은 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sup>16)</sup>

내담자 중심 요법을 쓰는 상담가의 주요 활동은 내담자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의미를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는 능력을 ‘감정이입(empathy)’ 이라고 한다. 감정이입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들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과 역지사지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어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상담가가 감정이입을 통해 내담자의 세계에 들어가 내담자 스스로의 인식대로 내담자를 이해한다면, 그 상담자와 공감하고 있는 것이며 내담자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로저스의 감정이입은 돈보스코의 감응하는 사랑과 많은 유사점을 지닌다. 감정이입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상담가가 내담자에게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뜻

16) 김형태, 《21세기를 위한 상담심리학》, 서울: 동문사, 2003, 84-85쪽.

한다.

돈보스코는 예방교육에서 교육자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학생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을 놓치면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신뢰와 일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인간중심의 상담에서 로저스도 상담가가 내담자를 수용하고, 내담자와 일치하며,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담가가 이처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거나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돈보스코는 교육자의 사랑과 참다움, 일치와 신뢰, 감정이입과 임상교육과 같은 현대적 상담의 요소를 그의 교육에서 이미 예견했던 것 같다. 하지만 돈 보스코의 감응하는 사랑과 로저스의 감정이입 사이에서 평행선이 존재하기에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에 대해 두드러진 애정을 느끼지 않고도 감정이입은 가능하지만 감응하는 사랑은 많은 애정을 내포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sup>17)</sup>

### 3. 예방교육의 ‘종교’와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및 이형득의 ‘본성실현 상담론’

이른바 과학적 탐구에 바탕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외적으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영적 차원을 강조하는 ‘로고테라피’라는 실존주의적 요법을 만들었다. 그에 의하면 인간 실존의 첫 번째 요소는 영성이다

“무의식적인 영성이 모든 의식의 근원이요, 뿌리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본능적인 무의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무의식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모든 무의식적 영성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본다. 그러므로 자아가 이드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무의식에 의해 생겨난다”.<sup>18)</sup>

인간 실존의 두 번째 요소는 자유다. 인간은 예측의 토대가 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조건을 초월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자유는 책임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로 이어진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양심, 내지는 자신의 하느님에 대해 책임을 지닌다. 로고테라피는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영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인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7) A. Panampara, 위의 책, 148-150쪽.

18) V. Frankl, quoted in C. H. Patterson, *Theories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p. 431.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영성을 첫번째 요소로 잡은 점에서 종교적 영혼 구제를 예방교육의 궁극목표로 삼은 돈 보스코와 공통된다고 보겠다.

한국의 고유한 상담이론을 제시한 이형득의 ‘본성실현 상담’은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상담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고 보았다.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자기 나름대로 이론적 틀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그 이론적 틀을 자신의 가치관, 신념, 사고과정 및 성격 특성에 적합한 동시에, 내담자와 공유하는 문화 또는 지배적인 철학사상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형득은 종교적 관점을 상담의 핵심요소로 보았다.

의학적 모형에 근거를 둔 심리치료와는 달리 상담의 이론은 예방과 발달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의 동향이다. 따라서 새로이 개발된 이론적 접근은 증상의 치료나 문제의 해결 보다는 능력의 개발 또는 본성의 실현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불교, 도교는 모든 인간의 본성을 선하고 유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의 실현을 궁극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9)</sup>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자아실현을 삶의 목표로 제시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아실현의 길에서는 종교적인 궁극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나 이형득은 자아실현이 곧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기독교, 불교, 도교가 이 실현의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길이라고 본 점에서 돈보스코의 기독교적 종교교육과 통한다.

돈보스코 역시 자아실현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다. 돈보스코에 의하면 자아실현이란 자기 운명의 실현, 즉 은총을 통해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은 모든 살아 있는 것의 원천이요,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존재하기에 인간은 하느님을 통해서만 자기 운명의 실현이 가능하다.

#### 4. 예방교육 기법의 상담적 측면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상담의 여러가지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돈 보스코는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두 가지를 적절히 구사하였다. 집단상담은 ‘저녁 말씀’과 ‘아침명상’으로 개인상담은 ‘임장교육’과 ‘귀엣말’, ‘고해성사’, ‘영적지도’, ‘개인적 대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19) 이형득, 《본성실현상담》, 학지사, 2003. .

### 1). 집단상담으로서의 ‘저녁 말씀’ 과 ‘아침 명상’.

오라토리오에서 기숙하는 학생들이 단체 모임에서 다음 날의 작업계획을 세우고 돈 보스코가 하는 짧은 훈화 내지 인사말씀이 ‘저녁 말씀’ 으로 되었다. 또 ‘아침 명상’ 은 살레시오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녁 말씀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저녁 말씀은 3분 내외의 짧은 훈화로서 오라토리오의 도덕적, 영적 조직으로서의 전통을 간직케 했으며, 이것의 중요성을 돈 보스코는 강조했다.

“매일 저녁기도 후, 아이들이 자러 가기 전에 원장이나 그 대리자가 전체를 모아 놓고,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등을 다정하게 일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뽑은 교훈을 짚막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훈화는 2-3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도덕과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교육적 성공의 열쇠다.”<sup>20)</sup>

이런 저녁말씀이 불가능할 경우 ‘아침명상’ 덕분에 살레시오 교육자는 학생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도록 지도할 수 있었다.

### 2). 개인상담으로서 고해성사, 영적 지도, 귀엣말, 개인적 대화

돈 보스코에 의하면 고해성사는 교육자의 손에 쥐어진 학생지도 및 상담의 중요한 도구였다. 그에 의하면 고해성사는 쉽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죄책감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다. 돈보스코는 이 성사에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입은 사제의 도움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지도가 가능한 상담이었다. 돈 보스코는 고해성사에서 예방교육의 실현과 사랑 가득한 상담 태도를 강조했다.

두 번째 개인지도의 형태는 가끔 고해소 밖에서 행해지는 영적 지도다. 1대1에 기초한 교육적 관계가 이 영적 지도의 특징이다. 학생 측에서는 양심을 완전히 열어 보이고, 교육자 측에서는 이에 상응하여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지도하고 상담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 지도형태의 골자다.

돈 보스코가 그의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지도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던 새로운 상담방식은 영적 조언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본인만 들을

20) B. Puthota, 이선비 옮김, 《예방교육영성》,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01, 320-322쪽.

수 있도록 몇 마디 가만히 속삭여 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도움을 받을 것이 있어도 도움을 청하기를 꺼린다. ‘귀엣말’은 이런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개인상담이나 교사들과의 ‘교육적 대화’를 나누려 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하여 귀엣말은 개인상담에 대한 초대이며, 시작의 역할을 했다.<sup>21)</sup>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교육자가 학생들과 계속 친밀감을 갖는 교육체계였으며, 상호 참여와 개별적 지도를 위해 서로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주목표로 삼았다. 돈 보스코는 이러한 자신의 상담방법을 일컬어 ‘교육면담’이라 불렀다.

예방교육에서 ‘교육면담’이라 불리워진 개인적 대화를 통해서 영적 지도, 사회적 인성지도, 학업지도, 취업지도 등이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이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상담의 전형적 예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V. 결 론

19세기 중반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 유럽에서 급격히 진행되면서 청소년의 공교육이 정치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사실주의 낭만주의 등 여러 학파의 교육사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때에 주된 공교육의 관행은 학생들을 권위와 벌칙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강압교육’이었는데, 이러한 관행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예방적 교육의 정신이 싹트고 있었다.

돈 보스코는 ‘강압제도’에서 ‘예방제도’로 교육을 전환하는 예시를 실천적으로 보여 줬으며, 매우 성공적이었고 독창적이었다. 그는 교육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문이나 긴 저술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예방교육’은 현대적인 교육과 상담의 이론에서 볼때, 여러 이론의 원류가 된다고 할수 있다. 또한 그의 실천적 예방교육은 현대적인 상담기법을 여러가지 형태로 창안 활용했다.

돈 보스코가 창안한 예방교육의 기본 원리는 ‘이성, 사랑, 종교’로 집약된다. 이 셋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될때 서로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감응하는 사랑과 영적 지도는 이성의 뒷받침이 없다면 본능적 애정이나 미신 또는 형식적 종교의식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사랑이 없는 이성은 논리만 있는 메마른 지성으로, 종교가 없는 이성은 궁극적 목표를 상실한 지적 도구로 전락한다. 돈 보스코는 청소년 교육에 이 셋을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현대적 상담기법을 적절히 구사하였다. ‘저녁말씀’과 ‘아침명상’은 오늘날의 집단상담에 원리를 적용했고,

21) 위의 책, 325-330쪽.

‘고해성사’, ‘영적 지도’, ‘귀엣말’, ‘개인적 대화’는 개인상담의 특별한 기법 또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담기법을 뒷받침한 ‘이성, 사랑, 종교’는 현대적 상담 이론중 앨리스의 ‘논리요법 상담론’,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론’,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등의 원류가 된다. 이형득의 ‘본성실현’ 과 돈 보스코의 ‘영혼의 구제’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깊이있는 고찰을 해 볼 가치가 있다.

19세기 돈 보스코가 당면했던 청소년 교육의 상황과 21세기 초 현대 사회의 청소년 교육의 상황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육이 여전히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란 점에서 일치하며, 청소년 교육은 ‘강압제도’가 아닌 ‘예방제도’가 유효하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 교육에서 중요한문제는 지적 교육보다는 전인교육 또는 인성교육인데 이 점에서 돈 보스코의 ‘이성, 사랑, 종교’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종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나, 각종 교회나 성당, 사찰등에서 행해지는 청소년 교육은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의 기본원리와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태, 《21세기를 위한 상담심리학》, 서울; 동문사, 2003.
- 살레시오수도회 편, 《청소년교육 돈보스코와 함께》,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03.
- 살레시오수도회 편, 《살레시오 청소년사목》, 돈보스코미디어, 1998.
- 살레시오회 한국 관구 편, 《돈 보스코》, 분도출판사, 1991.
- 벤자민 푸토타 엮음, 이선비 옮김, 《예방교육영성》,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01.
- 이형득, 《본성실현상담》, 서울; 학지사, 2003.
- 칼로 데 암브로조 지음, 살레시오여자수도회 옮김, 《돈보스코처럼 교육합시다》, 성요셉출판사, 1994.
- A. 카빌리아 지음, 서정관 옮김, 《살레시오 영성》, 돈보스코미디어, 1999
- E. 체리아 엮음, 김을순 옮김, 《돈보스코의 회상》, 돈보스코미디어, 2002.
- A. 파남파라 지음, 이선비 옮김, 《예방교육과 상담》,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00.
- F. J. 클로더 지음, 우경민 옮김, 《살레시오와 돈보스코》,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00.
- Aporti F., *Elementi di Pedagogia*, in : *Raccolti e Illustrati da A.Gambaro*, vol.II, Torino, Chiantore, 1945.
- Braido P., *l'esperienza pedagogica di Don Bosco*, LAS-Roma, 1988.
- Braido P., *Il sistema preventivo di Don Bosco*, Zurich, PSA-Verlag, 1964.
- Colli C., *Pedagogia spirituale di Don Bosco e spirito salesiano*, LAS-Roma, 1982.

Conferenze e scritti a cura di Stefano Maggio, *Lo spirito di Don Bosco nel cuore del beato Don Rinaldi*, SEI-Torino, 1990.

Giannatelli R. *Progettare educazione oggi con Don Bosco*, LAS-Roma, 1981.

Giannatelli R., *Don Bosco, Attualità di un magistero pedagogico*, LAS-Roma, 1988.

Midali M., *Don Bosco nella storia*, LAS-Roma, 1990.

Nanni C., *Don Bosco e la sua esperienza pedagogica*, LAS-Roma, 1989.

---

원고접수: 4월 26일                      1차심사: 5월 14일                      게재승인일: 6월 18일

연구자 소개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② 관심영역: 분석심리학

③ 주요논저: 〈대승기신론의 아라야식과 용의 무의식 비교고찰〉, 〈유식불교의  
종자설과 용의 원형론의 비교고찰〉, 〈불교의 무아설과 용의 자기실  
현 비교고찰〉

④ E-mail: hschung@suwon.ac.kr

---

## Don Bosco's Preventive Education and Counseling

Chung, Hyun-Sook  
(Suwon University)

### 《Abstract》

We considered the preventive system against the repressive system in youth education, and reviewed Don Bosco's basic concepts and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reason, love, and religion' in the preventive education system. The preventive education helps youths to have a judgement based upon reason, performs education on the place with loving kindness, and reaches its ultimate religious goal of spiritual maturity.

We compared the preventive system with modern counseling theories such as Ellis Rational-Emotive Therapy, Rogers' person-centered-counseling, Franks' logotherapy, and Huynngdeuk Lee's Human nature realization counseling. We also discussed its relation with modern counseling techniques.

We considered in modern counseling terms the preventive educational practices such as, 'Evening Talk', 'Morning Contemplation', 'Confession', 'Spiritual Guide', 'Personal Communication' and 'Whispering'.

Key Words: Preventive Education, Amorevolezza(Loving Kindness), Assistenza, Person-Centered Counseling, Rational Emotive Therapy, Empathic Understanding, Logotherapy.